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조혜은입니다. 2009년 12월경 예수님께서 저와 대화중에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그들이 눈에 밝혀 떠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진정 가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몰라 함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28일 예수님께서 “안되겠다. 섭리사 신부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하시고 이후 철야기도 때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섭리사 신부들아. 너희의 신랑 예수가 답답하여 내 마음, 내 심정 전한다. 나 이제 진정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아 섭리사 신부들에게 각자 작별 인사 하며 만나주고 있는데 너희는 진정 모르는구나. 마지막 인사 하러 가도 죄만 회개하며 사랑한다는 한 마디 하지 않는 자 자신의 문제에 빠져 내가 왔다 간 줄도 모르는 자 나의 손길 느껴 감사 감격하다가 하루도 안 되어 식어 버리는 자 많고 많구나. 그런 자들은 나의 이별의 눈물을 무색하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별이 눈앞에 온 줄 진정 모르지만 나는 이미 안녕을 말하고 그에게서 떠난 자도 있고 안녕을 말하러 갈 자도 있다. 하지만 섭리사 모든 자 각각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된다. 너희는 진정 나를 이렇게 보내고 후회가 남지 않겠느냐. 내가 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빈 것을 느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인데 그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나는 이리 사랑 또 사랑 퍼부어 주어도 떠나려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이리도 마음이 아픈데 너희는 진정 괜찮으나. 내 사랑 받은 자들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오직 사랑이다. 오직 내 사랑이니라.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만 사랑하라. 미움도 섭섭함도 개인 문제도 각자의 사연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라. 너희가 진정 내가 퍼부어 주는 사랑 완전히 받아야 내 사랑 잊지 않고 어려움도 견딜 것 아니냐. 내 사랑들아. 지금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속이 탄다. 해가 지듯 어두움이 몰려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정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너무 많아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찌 해 주어야 너희가 내 사랑 크게 깨닫겠느냐. 제발 내 마음 받아라. 내 사랑도 받아라. 깨어 있어 내가 마지막 인사 나누러 갈 때 함께 울어다오. 눈물도 흘려주고 사랑도 고백해다오. 그리해야 너도 나도 아쉬움이 덜하지 않겠느냐. 너희 나를 이리 보내면 너희 마음에 한 생긴다. 뒤늦게 깨달아 슬피 울어도 그 때는 나도 어찌해 줄 수 없으니 지금이다. 지금 나를 만나자. 나 있을 때 나 만날 수 있을 때 나를 후회 없이 대하자. 너희는 헤어짐의 때를 모르지만 나는 그 때를 안다. 누가 더 심정이 타겠느냐. 나는 지금 육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 흘러가는 날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도 너희는 참 모른다. 신랑은 심정이 타서 없어지고 있는데 신부는 참으로 천진난만 하구나. 나의 사랑들아. 나와 함께 울어다오. 제발 그리하자. 지금 나의 심정을 알고 나와 함께 우는 자 내가 마지막 인사 하러 갈 때도 울어줄 자이구나. 너희에게 길수도 짧을 수도 있는 헤어짐의 시간인데 나를 이리 보내놓고 어찌 지내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 잊으면 안 되는데 나 잊고 살고 나 버리고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너희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믿음을 다오. 나와 이별의 선물로 확신을 다오. 변치 말아라. 나 떠나고 나서 너희 변할까 두렵고 또 두렵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려면 진정 온전한 나의 사랑 받아야 하는데 내 사랑 안 받고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 받아라. 깊이 있게 깨달아라. 내 사랑 깨달아야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를 찾아가서 한 마지막 인사는 걱정의 눈물뿐이구나. 섭리사 신부들아. 이제는 정녕 마지막 인사의 때다. 긴장하고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제발 나를 만나자. 제발 그리하자. 내 마음 받아다오. 내 사랑도 받아다오. 그리해야 사랑의 추억, 사랑의 마음 생겨 환란, 어려움도 이기게 된다. 마지막 이 때 나를 예민하게 느껴 보아라. 그리해서 서로가 마지막 작별 인사 나누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진정, 진정 사랑한다. 내 사랑 변함없다. 섭리사 신부들아. 사랑한다. 내 사랑 깊이 있게 느끼기를 바란다. 안녕. 섭리사의 신랑 예수